

1973년 6월 27일 제71회 중의원 법무위원회

○ 일시: 1973년 6월 27일(수) 오전 10시 16분 개의

○ 발언자:

- 아카마쓰 이사무(赤松勇)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
- 다나카 이사지(田中伊三次) 국무대신(자유민주당, 중의원 부의장, 법무대신, 자치청장관)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07105206X03719730627¤t=10>

○ 해제(개요 및 특징)

아카마쓰 의원은 홋카이도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선에서 부녀자를 납치하여 강제로 위안부로 홋카이도에 끌고 갔음을 지적하며, 인권유린적 성격, 침략 행위적 성격을 질타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다나카 법무대신은 구체적인 즉답을 회피하고 있음.

○ 주요 내용 번역

▷ 아카마쓰 위원 “(전략) 오늘은 다나카 법무대신이 아니라 다나카내각 각료의 일원인 국무대신 자격을 지닌 다나카 국무대신에게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간토대지진(關東大震災) 당시 6,000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일부 선동자의 의해 심한 박해를 받았고, 그중에는 학살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점은 대신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변호사연합회(日弁連)를 중심으로 전쟁 전의 조선인 학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장인 오자키(尾崎) 변호사를 단장으로 총 20명의 조사단이 홋카이도(北海道)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차례로 밝혀진 것은, 조선에서 지나가던 아이를 납치하여 홋카이도로 데려가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조선의 부녀자 200명을 납치하여 홋카이도로 끌고 가 강제적으로 위안부, 즉 매춘부로 유곽에 가두고서 이들을 학대했다는 사실, 여기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법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향후 대(對) 조선 외교정책에서 하나의 자료로 삼고 싶습니다. 이러한 전전(戰前)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는 인권유린, 외교적으로 말하면 침략행위입니다. 이 점에 관해 다나카 이사지 국무대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정치적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다나카 국무대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의견이라면 제 소관 이외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은 일반론으로서 듣겠습니다. 홋카이도에 그런 자료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전(戰前) 우리나라의 반민주주의적인 어두운 시대, 이 암울한 시대에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음습한, 보기에 따라서는 잔혹하기 짝이 없는 일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자료들이 차차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자료의 배경을 장차 조선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에서 살려 나가고자 하며,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 대(對) 조선 정책에서 외교정책으로도 이것을 옮겨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교정책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조선의 관계자들이 일본에 입국하는 단계에 이르면, 일본의 중요한 내정(內政)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치(內治), 외교의 대 조선 정책상 충분한 반성의 자료로서, 과거 어두운 시대의 일들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